

지역 소식 통

고창군 등, 세계국가유산
산업전서 세계유산 알리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도시 고창군)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C)에서 열리는 2025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홍보부스에선 한국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쿼츠 이벤트와 방문객 대상 럭키드로우를 통해 흥미를 유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회장도시 고창군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 31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산업전에서는 각 회원도시의 세계유산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홍보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 홍보부스를 방문하시어, 한국 세계유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8회 고창군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13일 저녁 르네상스에딩홀에서 ‘제8회 고창군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형철)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후원했으며, 관내 보육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군수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후 진행된 보육 교직원 대상 힐링 토크쇼는 큰 호응 속에 펼쳐졌으며,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고창군은 보육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 △어린이집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안전관리 지원 △정수기·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고창군민의 맞춤형 보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성과중심 행정체계 도입 운영

부안군, 4년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군부 1위 · 공익이행 최고등급

부안군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006년부터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전략목표를 직무성과관리(BSC, Balanced Score Card)와 연계하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약사업, 주요투자사업, 현안사업, 국정합동평가 등 핵심사업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단순 수치 산출을 넘어 군민과의 상호 피드백(만족도)을 반영하는 등 매년 성과지표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 및 평가절차의 객관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평가단의 성과지표 컨설팅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표 개발부터 확정, 평가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연초에 수립한 목표의 달성도를 상·하반기 연회 자체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진단, 개선·환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의 노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 달성, 정부합동평가 도내 군부 1위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블루카본, RE100 등 전 지구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SG행정 분야를 비롯해 국가예산 신규 확보, 기관표창, 상위기관 정책대응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직원들의 폭넓은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생활밀착 현장행정 나섰다

주차장 · 텃밭 · 황톳길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잇따라 방문하며 주차장, 공동체텃밭, 황톳길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읍형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초산동 임시주차장을 비롯해 시가동 공영주차장, 공동체텃밭 추가 조성 예정지, 황톳길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공간을 차례로 점검하며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초산동 공영주차장에서는 이번 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언급하며 “계고장 부작, 경고문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도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산동주민센터 인근 임시공영주차장에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편을 최대한 확보하고, 임시시설이라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라”며 시민 중심의 적극행



정을 강조했다.

시가동 공영주차장과 9동 주차장에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토지매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며 “9동 주차장은 유료화를 전제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6면 설치

고창군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

다.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과 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이용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할 것을 권고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계절 감성 이미지 콘텐츠 확보

정읍시, 관광명소 담은 트래블스냅 촬영... 봄 10개소 50컷 선보여

정읍시가 인물과 풍경을 감각적으로 담은 ‘트래블스냅’을 통해 감성 가득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봄 풍경이 유독 아름다운 지역 명소 10곳을 선정해 인물 중심의 트래블스냅 촬영을 완료했다. 이번에 담긴 장소는 월영습지, 정읍시문화공원, 한국가요촌, 달하, 내장산 우화정과 솔티숲, 고택문화체험관, 김명관 고택, 내장산 용굴과 케이틀카, 내장산 조각공원 등이다. 선정 기준은 경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역사성, 스토리텔링 요소, 대중적 인지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번 트래블스냅은 단순한 풍경 중심이 아닌 인물과 체험을 함께 담아 각 명소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고택문화체험관에서는 다도와 싱잉볼 체험을 즐기는 장면을 우화정에서는 물에 비친 하늘과 푸른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담았다. 내장

산 용굴은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역사적 의미를 담아낸 공간으로, 감성과 의미를 동시에 담은 사진이 완성됐다.

김명관 고택의 처마 아래 단아한 한복 차림의 모습이나, 솔티숲의 편백나무에 기대 잠시 쉬는 장면, 내장산 조각공원의 산책길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 등은 정읍의 일상을 특별한 여행의 순간으로 바꿔준다.

또한 가벼운 차림으로 다양한 생태자원을 체험(월영습지)하고 도심 속에서 찾는 힐링의 시간(정읍시문화공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를 테마로 조성된 공간의 특화된 매력(한국가요촌, 달하)까지 인생샷 감성 여행지 순간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시는 이달 중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생사진 기자여행’도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신형 수소 승용자동차 ‘다올뉴닉쏘’ 보급

부안군은 지난 10일자로 신형 수소 승용자동차 ‘다올뉴닉쏘’가 출시됨에 따라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수소전기차인 다올뉴닉쏘는 7년 만에 출시된 모델로 이전 모델 대비 충전 시간이 감속돼 5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가능거리가 기존 600km에서 702km로 연장됐으며 수소 저장량 또한 증가해 뛰어난 동력 성능을 보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판매가격은 약 7644만원 이상이며 보조금 3450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자부담 금액은 약 4194만원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으며 승용차 20대 물량 중 6월 현재 기준 8대를 보급 완료해 지원 가능한 잔여 물량은 12대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11월 12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 전일(2025년 2월 17일)까지 60일 이상 연속해 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함께 키우는 정읍 농업’ ... 로컬협동조합 출범

정읍 농민들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지난 12일 ‘정읍로컬협동조합’ 발대식을 통해 힘차게 시작됐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치러졌다.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합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협동조합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정읍로컬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조합원 선언문을 낭독하며 공동의 비전과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조합 운영



방향과 지역 농업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학수 시장은 축하를 통해 “정읍로컬협동조합의 출범은 정읍 농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